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9.4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- SK이노베이션 E&S, 덕양에너지와 손잡고 기체·액화 복합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 ('26.9.2, 가스신문)
 - SK이노베이션 E&S와 덕양에너지는 9월 2일 기체·액화 복합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
 - 덕양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 E&S의 액화수소충전소 인접 부지에 기체수소 충전인프라를 구축·공급하고 SK이노베이션 E&S는 수요 발굴과 복합충전소 구축·운영을 담당함
 - 양사는 충전소 5곳을 우선 검토하며 충전소당 약 60억원을 투입해 연간 약 180톤의 기체수소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함
- “생산보조금·배관망·충전소 시급”…수소산업 재도약 위한 현장 제언 ('26.9.2, 에너지데일리)
 - 국회수소경제포럼은 현대차·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수소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계 애로사항과 국회 지원방안을 논의함
 - 산업계는 수소산업 재도약을 위해 안정적 수요시장 조성, 생산보조금 도입, 수소 배관망 구축 및 충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함
 - 현대차그룹은 수소 승·상용차와 철도차량, 수전해산업의 초기 시장 확대와 생산·저장·운송·활용을 연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함
 -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수소사업법·수소도시법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, 장기계약·가격차액 지원 등 시장제도 마련도 추진할 계획임

- 기후부, 실생활 온실가스 감축도 배출권 거래 포함한다
(’26.9.2, 투데이에너지)
 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외부사업 방법론을 처음 승인함
 - 수소버스 전환을 포함한 신규 외부사업 28건은 연간 2만2,10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됨
 - 위원회는 기존 외부사업 10건의 감축량 약 76만톤을 인증하고 분산형 열병합발전과 SF6 열분해 처리 등 신규 방법론도 함께 의결함
- 中 그린수소 전략에서 찾은 AI 시대 전력 해법 [HESS가 뜬다 ①]
(’26.9.3, 월간수소경제)

□ 해외

- [프랑스] 프랑스, 국가 수소 경매 2차 공모 개시…중국산 수전해 설비 사실상 제한 (“26.9.2, Hydrogen Insight”)
 - 프랑스 정부는 250MW 규모의 저탄소수소 생산설비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금 경매 2차 공모를 개시함
 - 재생에너지·원자력 전력으로 생산한 수전해 수소에 15년간 kg당 보조금을 지급함
 - 5~250MW 사업자는 10월 2일까지 신청하며 적격 사업자의 최종 입찰은 연말까지 진행됨
 - 입찰가격이 평가의 70%를 차지하고 보조금 상한은 1kg당 4유로 (약 6천 3백원)임
 - 나머지 30%는 에너지·기술·환경 영향과 사업 성숙도를 평가함
 - 유럽연합 밖 지배적 공급국의 수전해설비는 사업 용량의 25%로 제한돼 중국산 설비가 사실상 제한됨
 - 생산 수소는 산업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운송연료 공급용은 제외됨
 - 프랑스 정부는 2027년 550MW 3차 공모를 추진해 누적 지원용량을 1GW로 확대할 계획임



< 사진: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, 출처: Nicolas Tucet/AFP via Getty Images >

○ [중국] 동평 수소 대형트럭, 상시 상용운영 가속화
(‘26.9.2, Fuel Cell Works)

- 동평상용차와 안제추다오는 8월 30일 우한에서 중국산 수소연료전지 트랙터 30대의 1차 인도식을 열고 대규모 운영을 시작함
- 양사는 3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여러 차종의 수소 대형트럭 1,500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
- 이번 인도는 시범운행 중심이던 수소 대형트럭을 실제 물류 현장의 대규모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는 단계임
- 양사는 3개 노선과 19개 충전소로 구성된 수소 공급망을 활용해 차량·도로·에너지·서비스를 결합한 운영체계를 구축함
- 운영구간은 후베이성 고속도로망과 연계해 수소차 운행과 충전 접근성을 함께 확보함
- 동평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연료전지 스택 연구개발에 반영해 효율과 신뢰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함
- 안제추다오는 충전인프라와 운영서비스를 보강해 1,500대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일 예정임
- 동평의 수소연료전지 제품 플랫폼은 20kW부터 400kW까지 상용차 수요에 대응함
- 동평은 누적 1만대 이상의 수소연료전지차를 판매하고 중국 40개 이상 도시에서 사업을 전개함
- 동평은 우한·충칭·청두를 연결하는 광역 수소 고속도로 실증사업을 주도함
- 동평은 2027년 수소 대형트럭 양산체계를 구축해 상용 운송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